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드론 활용 수해 조사·복구 지원

▲ 박영준 기자 | ⓒ 승인 2025.07.28 19:40

산간 지역 및 토사 유실 등 접근 어려운 지역 피해 조사에 드론 활용
정확한 정보 수집 통해 재난 대응력 높이는 데 총력



산청군 신등면 율현저수지, 사면유실 및 방수로 파손 지역 드론 촬영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이뉴스투데이 경남취재본부 박영준 기자]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가 드론을 활용해 진주시·산청군 일대 수해 피해 지역 조사 및 신속한 복구 지원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손영식)와 진주산청지사(지사장 이은수)는 지난 21일~25일 수해피해 합동조사팀을 편성, 드론 5기를 투입해 진주시·산청군 일대 피해 현황 조사에 나섰다.



산청군 단성면 자양용수간선, 산사태로 인한 취입수로 파손 지역 드론 촬영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합동조사팀은 산간 지역 및 토사 유실 등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피해 현황을 드론 촬영을 통해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확보, 농어촌공사 관리시설물 33개소의 피해 현황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보고 하는 등 복구 계획 수립과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관계자는 “재해조사에 드론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정확한 정보 수집을 통해 재난 대응력을 높이고 신속한 예산 확보로 항구적인 시설물 복구를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